



파킨슨병에서 주입치료(infusion therapy)에 대한 핵심 사항들

파킨슨병에서 약물 치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파킨슨병 환자의 뇌 안에서는 충분한 도파민을 생성하지 못해,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파킨슨병 약물은 대부분 도파민 대사에 관여하여 증상이 나아지도록 도와줍니다. 파킨슨병 초기에는 보통 약효가 하루 종일 유지되지만, 병이 진행하면서 약효가 다음 약물 복용 시간까지 유지되지 않는, 이른바 “약효소진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떨림, 느림, 보행 장애와 같은 파킨슨병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약물 복용 후 약효가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 약효가 있는 시간을 “ON”, 약효가 소진되는 시간을 “OFF”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이 진행하면서, 약효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약효소진현상을 막기 위해 약물을 점차 자주 복용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 증상도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주입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주입치료는 인슐린 펌프와 같이 피하에 삽입한 바늘이나, 소장에 삽입된 관을 통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공급하여, 약효소진현상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입 약제로는 레보도파(levodopa)와 아포몰핀(apomorphine)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레보도파: 레보도파는 경구 복용 약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이며, 뇌에서 도파민으로 대사되어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주게 됩니다. 주입치료에 사용되는 레보도파는 젤 형태의 레보도파(LCIG)로 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에 공급됩니다.
- 아포몰핀: 아포몰핀은 도파민 효현제로 뇌 안에서 도파민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피하주사를 통해 체내로 공급되며, 지속적/단발성 주입 모두 가능합니다.

레보도파젤이나 아포몰핀 모두, 약제를 넣고 주입하기 위한 펌프를 환자가 체외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레보도파 젤의 경우 펌프는 관을 통해 장에 레보도파를 주입하고, 아포몰핀의 경우 피하 주사 바늘을 통해 아포몰핀을 주입합니다.

주입치료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파킨슨병 환자의 뇌 안에 충분한 도파민이 없을 때 약효소진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파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약물을 보다 자주 복용해야만 합니다. 주입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지속적인 약물 주입을 통해 결과적으로 도파민이 꾸준히 뇌에

공급되어, 환자의 증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입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경구로 복용하는 약물의 용량 및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입치료는 각종 경구 약물이나 패치 제제 보다 효과적인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입치료는 어떤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약효소진현상이나 이상운동증(약효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발생하는 증상)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주입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복용 약물을 줄일 수 있지만, 경구 약물로 호전되지 않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주입치료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입치료 시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레보도파젤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 관을 장에 삽입하는 시술이, 아포몰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포몰핀 주사가 증상에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외래에서 혹은 입원 상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주입치료는 대부분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며, 적절한 용량을 맞추기 위해 몇 달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입치료의 제한점과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 주입치료는 전세계 어디서나 시행되는 치료 방법이 아니며 현재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2019년 기준).
- 주입치료 약제들은 기존의 경구 약제 혹은 패치 제제 보다 고가입니다.
- 주입치료에 사용되는 펌프 조작을 배우고, 조작하거나 도와줄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 레보도파 젤을 사용하기 위해 관을 삽입하는 경우, 삽입 시술이나 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포몰핀을 사용하는 경우 피하주사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 젤이나 아포몰핀 주입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다른 파킨슨병 약제 부작용들과 비슷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오심/구토
- 졸음
- 저혈압
- 환각/혼돈

또한 기존 파킨슨병 약제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주입치료 시행 때에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